

도서관에서 만난 제우스신

박 희 숙
미술칼럼니스트
bluep60@hanmail.net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다. 신들의 이름이 낯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기우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룬 책들은 읽는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도서관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가장 흥미를 주는 이야기가 제우스신의 변신이다. 제우스신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 땅을 관리 감독하고 있지만 모든 일에 다 관여하지는 않는다. 영원불멸한 신들이야테네, 아레스, 헤�파이토스 등 전문 신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하고 있다. 제우스신은 주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한다.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는 제우스신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사랑이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우스신은 아름다운 여신이나 여인과 사랑을 이루고 싶을 때 변신을 한다. 그렇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중에서 제우스신의 변신 이야기가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제우스신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변신한 이야기 중 역사상 가장 유명한 것이 레다와의 이야기이다. 제우스와 레다와의 연애 사건으로 인해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고 또 로마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레다는 스파르타의 왕인 틴다레오스와 결혼을 했다. 남편이 왕국에서 추방당하자 레다는 아버지 테스티오스의 궁정에 피해 있었다.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레다는 에우로타스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중에 제우스의 눈에 띄게 된다. 레다의 아름다움에 빠져 버린 제우스는 그녀에게 접근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변신에 능한 제우스는 백조로 변해 의심을 사지 않고 레다의 곁에 다가간다.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레다는 알을 두 개 낳게 된다. 첫 번째 알에서 제우스의 아들

인 카스토로와 폴리에우케스가 태어나고 두 번째 알에서 클리타임네스트와 헬레네가 태어난다. 제우스의 아들들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쌍둥이좌가 되고 클리타임네스트는 아가멤논과 결혼을 하고 헬레네는 틸다레오스의 뒤를 이어 스파르타의 왕위에 오르는 메넬라오스의 부인이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다와 백조'

백조로 변한 제우스신을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다와 백조'이다. 전통적으로 그림에서 레다는 백조를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다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연인 제우스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지만 그녀의 손은 연인을 애무하고 있는 모습이다. 쌍둥이가 태어날 두 개의 알이 그녀의 발밑에 놓여 있다. 백조로 변한 제우스는 날개 펼쳐 그녀를 안고 있다.

이 작품에서 백조에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레다는 정숙함을 암시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포즈와 부드럽고 포동포동한 피부는 그리스 고대 조각 중에 비너스를 연상시키고 있어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 작품의 주제인 사랑은 레다의 포즈뿐만 아니라 배경이 되고 있는 식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큰고랭이 속의 이 식물은 짝 찌 주머니를 터뜨려 씨를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식물을 통해 개체를 번식하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는 레다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 주제로 많은 스케치와 그림으로 남겼지만 이 작품의 원작 소재는 알 수 없다. 문서 기록과 몇 장의 모사본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이 작



레다와 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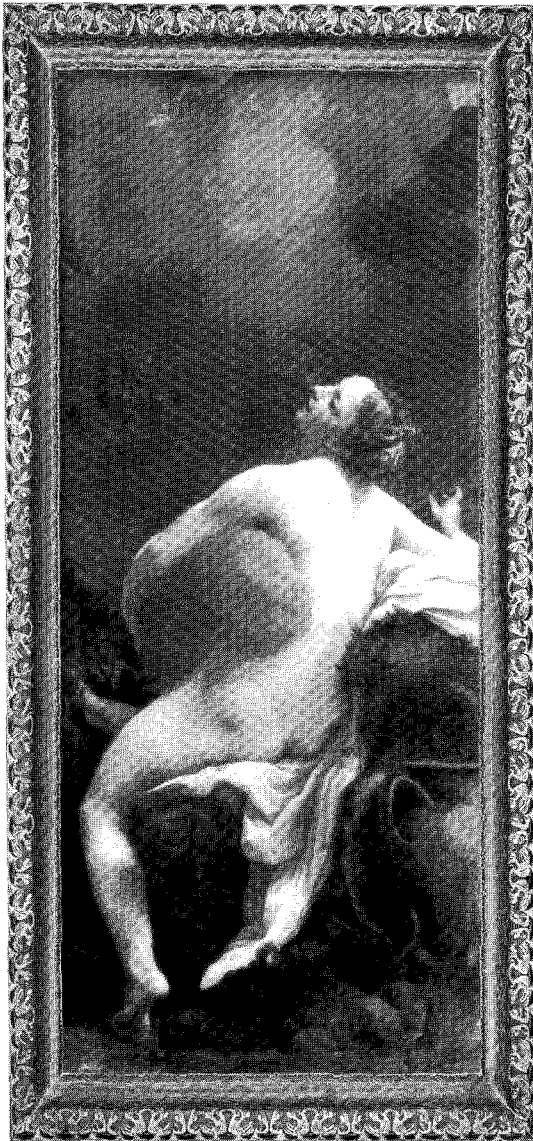
1505~1510년, 나무판에 유채, 69 × 73cm, 솔즈베리월턴하우스 소장

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제자 체사레 다 세스토가 스승의 작품을 모사한 것이다.

제우스신은 사랑을 위해서 여인의 상황에 맞추어 변신하고 있는데 구름으로 변신한 이야기가 이오다.

제우스신은 어느 날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의 아름다움에 반한다. 제우스신이 사랑을 속삭이지만 이오는 도망을 간다. 도망가는 이오에게 제우스신은 어둠의 장막을 내린다. 어둠에 익숙지 않은 이오는 도망가지 못하고 제우스신에게 잡히지만 그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제우스신은 이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구름으로 변해 결국 사랑을 성사시킨다.

한편 한낮의 먹구름을 수상하게 여긴 헤라는 급히 내려온다. 갑작스러운 헤라의 등장으로 놀란 제우스



제우스와 이오

1532년경, 캔버스에 유채, 163 × 74cm, 빈미술사박물관 소장

는 이오를 흰 암소로 둔갑시키지만 헤라는 백 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로 하여금 이오를 감시하게 한다. 암소로 변한 이오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 할 수도 없었다. 제우스는 이오를 위해 헤르메스를 시켜 아르고스를 죽이도록 한다. 심복이 죽은 것에 분노한

헤라를 본 이오가 놀라 헤라를 피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오의 고생을 볼 수 없었던 제우스는 헤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녀를 사람으로 환생시킨다.

코레조의 '제우스와 이오'

구름으로 변한 제우스를 그린 대표적인 작품이 코레조의 '제우스와 이오'다. 이 작품은 구름으로 변한 제우스신을 그린 작품 중 가장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

이오를 감싸고 있는 구름은 제우스신이고 이오의 허리 부분의 구름은 인간의 손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오의 입술 위에 있는 구름에는 남자의 얼굴이 어렵듯이 보인다. 남자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다.

한편 남성의 손길에 수줍음을 느끼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황홀감에 빠져 있는 여성은 얼굴을 살짝 돌리고 있다. 남자의 키스를 받아 황홀경에 빠져 있는 여인은 이 그림의 후원자가 특별하게 요구했던 모습이다.

코레조(1490~1534)는 이 작품에서 제우스신을 구름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전의 화가들은 신화의 이야기기를 그린 적이 거의 없다. 구름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화의 내용을 표현했다. 첫 번째가 이오의 입술과 키스하고 있는 제우스의 얼굴이고, 두 번째가 그녀를 껴안고 있는 사람의 손을 닮은 구름이다.

코레조는 제우스의 불륜을 주제로 네 편의 연작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초기 르네상스 그림 중에 가장 예로틱한 그림으로 꼽히고 있다.

제우스신은 백조와 구름뿐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서러면 황금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만난 제우스신은 완벽한 신의 모습보다는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어 우리의 욕망을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